

노년기 회상연구에 관한 고찰(I)*

Review of the Elderly Reminiscenc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명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Kim Myung Cha

〈목 차〉

- | | |
|-----------------|-----------------|
| I. 연구문제와 목적 | IV. 회상의 주제 및 유형 |
| II. 회상의 개념 및 동기 | V. 노년기 회상의 기능 |
| III. 회상연구의 접근법 | VI. 맺는말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plore the relevance of reminiscence behavio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ell-being. Various concept and prevalence of reminiscence and themes of reminiscence is investigated. Then the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the motive, pattern and the function of reminiscence behavior is reviewed. Psychological determinism, social contextualism, life course perspective are described. Since many transitions and changes are socially organized and differ strongly for social categories, life course perspective can contribute to analysis of both similarity and variation in elderly reminiscence behavior.

After all it is concluded that there is evidence of reminiscence behavior can be a enhancing mediato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ell-being.

I. 연구 문제와 목적

본 연구는 노년기 회상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노년기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60년대 이래로 국내에서도 노인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1994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노인문제는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을 내포하고 있어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노년기 상실감에 따르는 제반 심리적 문제를 극소화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자경심이나 적응력,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회상활동이 노인의 적응력을 도울 수 있음이 많은 연구(Moody 1984, Taft & Nehrke 1990, Beaton 1991)에서 시사되고 있으나, 회상의 보편성 문제, 회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모든 연구가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David 1990, Merriam 1993, Haight 1995).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상활동은 시설 수용 노인, 재가노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훈련이 없는 사람도 노인의 생애사를 더듬어가면서 성의있는 경청자가 됨으로써 상담자·교육자의 역할이 가능하며, 세대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나아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 만으로도 회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 회상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 분야에서 임상적용 효과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전시자 1989, 하양숙 1990, 정 영 1994)가 있을 뿐, 회상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회상의 주제선정, 회상과 적응과의 관련성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심리적 적응을 돕기위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차적 작업으로 회상연구의 접근법, 회상의 내용과 주제, 회상과 노년기 적응과의 관련성, 회상의 기능등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실시하여 국내에서의 회상연구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인생사를 조사함으로써, 노년기 회상활동의 노년기 적응력 향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며, 나아가 노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실증연구에 대한 보고는 지면관계상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회상과 회고의 개념을 명료히 한다.
- 2) 회상연구의 접근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다.
- 3) 회상의 주제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4) 회상과 노년기 적응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노년기 회상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노년기 회상활동을 보다 기능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상의 개념 및 동기

노년기 인생회고와 회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적용이 1980년대에 노년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보건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폭 넓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인생회고나 회상결과에 비중을 둔 나머지, 회상의 개념적 의미를 명료화하는 작업을 간과했으며, 따라서 개념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연구의 타당도를 약화시키고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인생회고나 회상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즉 회상(remiscence), 기억(memory), 이야기하기(story telling), 자서전, 구두사(oral history), 전수(transmission), 회고적 생애분석(retrospective life span analysis), 생애사(life history)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Merriam 1993), 본 고찰에서는 노년기 회상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회상과 인생회고의 개념을 가능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인생회고와 회상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회상

회상을 연령증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감

각적 인지능력감퇴의 반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하며 또한 참여가능한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회상행위는 인지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증가한다고 본다. 즉 활동과 선택의 폭이 제한된 무기력한 노인이 회상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Fry 1995).

McMahon과 Rhudick(1964)는 회상의 동기를 논의하면서 사회적 유리와 자기도취 욕구의 실현을 제시했는데 노년기 사회적 유리는 현실로부터의 위축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인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회피하는 경향이며 이것은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recent memory)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상실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도피를 가능케하는 방어기제이며 거부증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노인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먼 과거의 사건은 노화에 따른 사회적 유리과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며, 젊은 시절의 보다 즐거웠던 경험과 관련된 것이므로 먼 과거에 대한 기억(remote memory)은 비교적 양호하다. 먼 과거의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즐거움이며 또한 기억능력은 만족감과 사랑감의 근원이 된다.

또한 노년기 회상이 자기도취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서 비롯한다는 견해는, 우울감 이론에서 제시한 가치롭다고 인정을 받고, 우월하고 강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선택하며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등이 노인의 과거사 이야기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임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이와같이 회상은 자신의 의미를 창출해 나간다는 점에서 선별적이며 노인으로서 하여금 지속적인 자기도취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자정심을 유지하도록 하며 노년기의 상실감에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McMahon과 Rudick(1964)는 자신의 생애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회상의 욕구가 강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기정당화의 욕구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회상을 생애 마지막에 누구나가 수행하는 보편적 과업으로 보지는 않았다.

결국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흥미의 결여, 상실감에 대처하고자 하는 자아의 노력과 이러한 과정의 몰입등이 모두 회상행위와 관련된다(Kaminsky 1984에서 재인용).

Romaniuk(1981)는 자신의 전체적인 생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를 기억하는것을 회상으로 보고, 개인적인 내용 즉 인지적인 것과 대인관계적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응답자가 얼마나 자주 과거 경험이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했으며, 많은 응답자가 자신을 인지적 회상자로 여긴다고 하면서, 대화에 의한 회상은 회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언어적·비언어적인것, 의도적·비의도적인것 모두를 포함하는 기억으로 질문지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내용을 회상으로 보았다(Thornton & Brotchie 1987에서 재인용).

면담에 근거한 회상은 대화를 통한 회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경청이나 상호작용 그리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노인으로서 하여금 지시적 면담이 아닌,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뒤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

이처럼 회상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특정한 질문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지나온 생애사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연구에 내재된 가정은 개인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정, 재조직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은 생애사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회상의 실용적 정의는 회상요법 연구에 의해 개념화 되었는데, 즉 Hobbs(1983)는 슬라이드 자료와 테이프를 대상자에게 제시한 후 토의시간을 가졌으며, 이들은 회상행위를 먼 과거의 일을 다루는 수동적 기억으로 정의했다. Hughston & Merriam(1982) 역시 회상을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상기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기억하는 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적, 사회적 과정보다는 인지적인 면에 관심을 두는 정의임을 암시한다(Thornton & Brotchie 1987).

2. 인생회고

Butler(1963)는 30여년전 인생회고에 관한 최초의 논문에서 인생회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생회고는 자연스레 발생하는 보편적·인지적 과정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되돌아가 미해결의 갈등을 해결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과 갈등을 탐구하고 재통합할 수 있다. 인생회고는 사망이 임박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강인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감지할 때 발생한다.”

이와같은 관점은 억압되었던 죄책감과 후회감이 인생회고의 주요 동기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인생회고가 과거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나타낸다.

Butler는 인생회고를 내적경험이나 정신적 과정으로 특징지으면서 대부분의 노인이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으로 인생회고를 시도하며, 따라서 인생회고는 사망에 대한 반응이며, 과거경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생회고를 통하여 사망을 준비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Butler는 인생회고가 노인은 물론 사망에 임박한 젊은 환자나 사형수에게서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인생회고를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

Butler는 이처럼 인생회고가 어느 연령에서도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사건이 인생회고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인의 인생회고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이 생애를 통합하고자 하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감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노년기는 사망이 가까우며 은퇴로 인해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고 자신을 방어해주던 직업도 없으므로, 인생회고가 노인에게 보편적인 경향을 보여 초로기인 60대에 인생회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이후 점진적 감소를 보인다(Butler 1975).

그러나 인생회고가 사망에 임박해 촉진되는 노년기의 보편적 과정이라는 Butler의 가정이 모든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연구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연령간의 직선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인생회고의 보편성에 관한 증거는 기껏해야 젊은이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Merriam 1993), 이것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인생회고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인생회고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결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한 노인을 후원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견해가 있으며(Merriam 1993), 대체로 과거와 현재간의 크나큰 단절과 변동을 경험한 개인이 보다 폭넓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변동의 시기에 기억을 재구조화함을 의미하며, 현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의 의미를 반영함을 뜻한다(David 1990).

Levinson(1978)의 성인발달 연구에서는 과도기의 자기성찰과정에서 과거업적과 실패에 관한 의문이 안정된 생애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고는 현재의 생애구조를 조정하는 계기와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생회고는 역동적 과정이며 성인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됨을 암시받을 수 있다. 인생회고는 노인으로서 하염없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심리적 갈등의 해결, 가족관계의 화해, 평정감등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낙관적 관점은 인생회고가 치료기법에 활용되어 노년기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과거의 갈등을 회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회고 과정에서 우울감이나 죄책감 그리고 지속적인 망상이나 경직성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인생회고 활용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Webster와 Young(1988)은 인생회고가 기억(recall), 평가(evaluation), 종합(synthesis)의 3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첫번째 과정인 기억은 의식적이며 의도적 행위로, 명백하게 기억하는 과거 경험이나 사건이 있는가하면, 모호하거나 희미하게 기억되는 사건도 있다. 또한 어떤 기억은 행복감이나 자량, 애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는 반면, 다른 기억은 죄책감이나 무력감, 혐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도 관련된다.

두번째 과정인 평가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을 재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에 현재 상황이나 환경적·역사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와같이 개개인의 현재 상황들 안에서 기억은 끊임없이 재수정되므로, 인생회고는 정적인 현상도 아니며 또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통찰이 과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30년대에는 부도덕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여기던 경험을 현재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다.

Butler는 인생회고를 내적과정으로 보았으나, 과거사에 관한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외부적 상황에 의해 과거 경험은 새롭게 조정되며 조정된 기억은 자아로 통합된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하여는 방어적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건 발생에 대한 거부,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억압 등이 그 예이다.

개인의 과거가 기억과 평가를 통해 수정되고 정교화되면서 재통합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마지막 단계인 종합이다. 즉 기억되고 평가된 과거는 자아의 현재와 과거를 새로이 조직화하여 수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인들이 개인의 생애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회고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며, 인생회고는 현재라는 용어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회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 대한 종합적인 기억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회고는 억압되었던 죄책감과 후회감에 의해 유발되며 과거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Coleman(1974), Romaniuk & Romaniuk(1981)은 인생회고를 회상의 하위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III. 회상연구의 접근법

본 고찰에서는 가능한 넓은 범위를 회상에 포함시

켜 회상이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보편적·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결정론적 관점(determinist psychologist), 노년기 발달에서의 역사적·문화적 관련성을 지적하고 노년기 회상 행동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사회적 상황론적 관점(social contextualism), 그리고 개인경험의 중요성을 보완한 라이프코오스접근(social life course)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정론적 관점

노년기 회상은 개인의 정상적 발달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보편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Butler와 Erikson(1963)이 여기에 속한다.

Butler와 마찬가지로 Erikson 역시 노년기에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생애 마감의 장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평가하게 된다고 본다. 이 때 과거생애를 수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다가올 사망을 수용하게 되며 따라서 자아통합에 이른다. 그러나 과거생애를 돌아 볼 때 죄책감이나 거부감, 후회감에 빠지게 되는 노인은 다른 생애를 시작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음을 느끼면서 사망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따라서 실망감과 분노감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노년기 회상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지하는 관점은 사회심리적 발달이 연령증가에 맞추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노년기 회상의 시작과 진행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심리적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은 주어진 환경안에서 규범적인 질서를 따라 성장하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Lamme & Baars 1993). 특히 노년기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 환경적·상황적 맥락 등을 지니고 발달해 나가는 성인 발달 원리를 통합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2. 사회적·상황론적 관점

개인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의 발달과 사회·역사적 변동은 상호관련이 있으므로 노년기 회상은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Riegel의 뒤를 이어 Meacham(1977, 1984), Kvale(1977)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기존에 획득한 지식이나 경험은 현재를 대처해 나가는 유용한 자원이며, 따라서 회상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을 가해나가는 생애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기억이 현재 상황과 관련 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과거는 새롭게 재구성되며,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상황이 변화되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기 마련이다(Lamme & Barrs 1994).

Kvale(1977)는 기억은 현재를 통한 구성이라 했으며, 또한 과거와 현재 상황을 동시에 반영하는 사상이라 했다.

인간의 행위와 의식은 가까운 과거와 먼 과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으며, 먼 과거에 관한 기억은 최근의 경험을 통해 여과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상황론적 관점에서는 회상을 결코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위로 보지 않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억을 통합하고 환기하고 해석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더해가며 변증법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노화의 경험은 상황과 장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개인의 경험은 특정상황에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Meacham(1977)은 기억하는 그 일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회상이 아니라 기억과 현재의 동기나 인지과정간의 유사성을 규명하는 것이라 했다. 즉 과거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보다는, 개인과 상황과의 상호관련속에서 개인은 현재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개념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상에는 주관적 평가와 해석이 포함되므로 회상은 융통성이 있으며 변화가 가능하다. 따

라서 회상의 명확성보다는 개인이 현재 관심 있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기억을 중시한다(Webster & Yong 1988).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나 기억, 사고 등은 극히 사회적인 것으로 개인은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회상함을 의미하며, 결국 회상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함의에 의하여 타인과 함께 공유되며 합법화되므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사회적 상징의 보편성으로 감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가 상징적 보편성의 근원이 된다(David 1990). 이것은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재해석함과 동시에, 회상을 통해 자신을 재정의하고 지속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감을 의미한다.

회상에 대한 상황론적 관점은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다양성과 이질성을 상정하며 이러한 맥락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회상을 정의한다. 새로운 상황에 의해 회상이 재정의된다는 입장이므로, 인간기억의 임의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 그들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신화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Meacham은 개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조사하고 재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특히 노인에게 중요하며 개인의 인생을 회상하고 인성을 재조정하는 것이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상황론적 관점은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발달해 나가는 것이 아니며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고 있으며, 사회적 맥락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회환경이 과연 노년기 발달이나 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다. 노인이 자신의 생애사를 회상하는 확실한 사회상황이 이 개념 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

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는 상황적 관점을 확장하여 라이프코오스 접근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Lamme & Baars 1993).

3. 라이프코오스 관점

라이프코오스 접근은 장기간에 걸친 개개인의 변동에 관심을 두며, 또한 개인이 역사적 상황, 생활사건 등과 어떻게 관련되며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접근법(Aldous 1990)으로, 개인의 행위는 사회규범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점에서 구조기능론적 가정하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개념 틀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기성인기에는 발달과업이 사회적 역할에 의하여 비교적 잘 정리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호성, 비예측성, 무질서의 경향이 증대하여 각 개인의 인생사가 보다 독특해지며, 공통의 주제가 감소되고 생활유형의 다양성을 보인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통계적 평균치는 개개인의 다양성이 간과되므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Uhlenberg(1986)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생애주기를 연구할수록 평균적 유형을 규명하는 작업은 더욱 더 무리한 일이며, 개인차는 연령증가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하며, 개인의 생활경험은 각자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하고 상이하여서, 그 누구도 동일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생애발달에 대한 규범적·보편적 설명의 제한성과 함께 문화적·개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와 평균수명이 40세 전후였던 지난 세기와는, 개인의 생애 시간표가 상이하여서, 성인기에서 부모역할이나 직업활동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뚜렷하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생애가 남성의 비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비규칙성을 보인다. 국민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노년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더 새로운 다양성, 불확실성, 모호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프코오스 접근은 특히 성인후기 연구에 유용

하다(Hagesttdt 1993).

그러나 라이프코오스 관점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만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이들의 상호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노년기 회상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노인이 직면한 문화기대와 변동, 노년기 경험과 전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전환과 변동은 사회마다 상이하므로 라이프코오스 관점은 노년기 회상행위의 유사성과 다양성 분석을 위한 개념 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하겠다.

Ⅳ. 회상의 주제 및 유형

1. 회상의 주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회상의 주제나 내용은 대체로 리더가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생애단계에 따른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성별이나 지역적 특성, 동시집단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상이 가능하다.

Burnside(1995)는 단순한 기억을 유발하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비위협적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카타르시스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행복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주제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회상연구에서 가장 즐거웠던 명절, 첫 번째 애완동물, 직업, 학교, 첫 번째 데이트, 장난감, 친구, 추억 등 8가지 흥미있는 주제를 폭넓게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는 회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죄책감이나 갈등, 실망감을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제시해주며, 따라서 회상과 회고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말해준다.

회상의 주제선정시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urnside 1995)

- 리더는 자신의 호기심에 근거하여 주제를 선정하지 말 것.
-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지 말 것.

- 조사대상자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것.
- 기존에 시행된 연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제를 선정할 것
- 조사대상자의 성별, 동시집단, 지역적 특성,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할 것.
-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할 때 활용할 다른 대안적 주제를 준비할 것.
- 대상자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특정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할 때는 이것을 재빨리 인지하고 강요하지 말 것.
- 대상자와 관련된 기념일이 회상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할 것.

2. 회상의 유형

회상내용이나 유형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Fallot(1976)은 회상의 유형을 긍정적(affirming)유형, 부정적(negating)유형, 절망적(des-

pairing)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Coleman(197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상유형은 과거에 관련된 사실적인 내용을 회상하는 단순 회상, 개인의 생애에 대한 내적 성찰과 평가에 관한 인생회고, 그리고 개인의 견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를 사용하는 정보적 회상이다(Haight 1995, 에서 재인용).

또한 개별회상과 집단회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개별회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견해와 집단회상이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어, 각각의 회상이 상이한 이유로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으나, 개입시간이 긴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개별회상의 경우 회상자는 면담자와 친밀한 상황에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대상으로 장시간 개입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따른다. 집단회상의 경우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고통과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문제에 관해 집단 동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공

<표 1> 회상의 유형 및 내용

회상의 유형	회 상 의 내 용
긍정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을 전반적인 자기수용으로 특징짓는다. ·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 또는 내면화된 면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생애를 통합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애를 대체로 부난하고 즐거운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다. · 부정적 경험이나 자아의 부정적인 면을 회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하며, 부정적 경험에 대한 회상의 영향을 극소화 시키려한다. · 부정적인 회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건너 뛰거나 부정적인 말을 감소·회피하려는 강박성을 보인다. · 회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건보다는 공적인 사건을 회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절망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부정적 경험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사를 고통스럽게 인식한다. · 유감스러웠던 일이나 성취되지 못했던 일들이 주제로 자주 언급된다. ·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한다. · 현재의 자신이 아닌 다른 자아를 소망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한다.

자료 : Hendricks(1995), p.174에서 재인용

통의 유대를 수립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새로운 터전을 형성한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나 거주지 변경 등 노인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단회상이 효율적이다(Haight 1995).

결국 회상은 다양한 유형의 기억내용을 포함하는 거대한 우산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회상과정의 형태를 비교·분석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V. 노년기 회상의 기능

회상의 기능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는 회상이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상요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고찰에서는 노년기 회상의 일반적 기능과 회상과 노년기 적응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회상의 기능

회상의 기능이나 내용은 연령과 관련이 있어, 노인이 과거를 재구조화하여 의미있고 정의적인 자원

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중년기는 회상을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Thornton & Brotchie 1987), Butler(1975)는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노인의 회상에 긍정적 가치와 의미성을 부여했다.

LoGerfo(1980)은 회상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도우며, 감정의 새로운 출구를 갖도록 한다고 보고, 회상의 3가지 기능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정보적(informative) 회상, 죄의식이나 갈등,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취에서 의미를 찾고자하는 평가적(evaluative) 회상, 그리고 특정상황에 대해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절망감을 초래하는 강박적(obsessive) 회상이 그것이다.

Romaniuk & Romaniuk(1981)은 회상을 과거 경험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13문항으로 구성된 회상척도를 요인분석하여 회상의 기능에 관해 3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Moody(1984)는 회상의 기능을, 값진 진주(Pearl of Great Price)를 찾아나선 사람들이 많은 장애물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 길을 안내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표 2> 회상의 기능

(1) 정보제공과 즐거움 강화의 기능(teaching & entertaining)
· 추억은 즐겁고 유쾌하며 시간보내기 좋다.
· 과거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 여가나 오락을 즐길 수 있다.
(2) 문제해결기능(problem solving)
·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다.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3) 인생회고기능(life review)
·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자신의 과거 생활과 자신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자료 : Hendrick(1995), p.187에서 재인용.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안내라 했다.

세대간의 관계는 한 개인의 생애한계를 넘어 미래 세대에까지 연장되어 지속성을 보장해주며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젊음과 노년은 상호관련되어 세대주기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과거를 찾아낼 수 있는 회상은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매개물로 개인의 私의 영역을 능가하는 公의 세계까지 포함한다 하겠다.

노인의 회상은 이러한 역사적 연속선상에서의 각 동시집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개인의 특성안에 각인된 역사적 운명의 자취를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적 자취는 公의세계의 값진 부분으로 노인의 회상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해주며 또한 연속적으로 그 세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Beaton(1991)은 Fallof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노인의 회상유형과 자아발달의 수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는데, 자아발달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긍정적 유형, 부정적 유형, 절망적 유형으로 변화됨을 밝혔으며, 따라서 긍정적 유형의 회상을 하는 노인의 자아발달 수준이 확실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상유형은 연령이나 학력, 출생지, 결혼상태, 종교, 직업에 따라서는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herman(1995)은 지역사회 거주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상연구에서, Romaniuk & Romaniuk이 제시한 정보제공과 즐거움 강화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회상에 대한 언급이 적었으며, 특히 제 3요인인 인생회고 유형의 회상이 의미있게 감소함을 제시하면서, 인생회고가 60대에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Butler의 인생회고론을 지지하였다. 특히 노인으로부터 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회상하도록 한다면, 노인은 정보제공의 역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회상은 노인의 자아를 지원하여 자경심을 강화시키며 회상행위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다(McGowan 1994).

또한 노년기회상에 관한 부정적 견해는 회상이 지

루한 자기도취이며 망각된 과거사에 대한 집착으로 회상을 노년기 내향성 증가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회상에 몰두하는 것이 노인의 특성이며 병리적이라는 가정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회상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기제이며 자아통합을 돕는다는 점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결국 노년기 회상기능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흥미가 있었으나 연령, 성별 등과의 관련성, 인생회고와 자아통합의 상대적 시기, 회상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2. 회상과 노년기 적응

회상의 적응적 기능이 회상빈도와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 그리고 생의 의미나 활동수준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회상이 노인에게 치료적 효과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회상을 통하여 자아통합이나 자아성취감을 향상시키며 죄의식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 노년기 적응에 효과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David 1990).

우울감이 낮은 사람이 우울감이 높은 사람보다 회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McMahon & Rhudick(1964)의 연구는 회상과 노년기 적응과의 긍정적 관련성을 제공하는 연구로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다. 이들은 정보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회상하는 경우 가장 적응을 잘 한다고 했다.

Romaniuk & Romaniuk(1981)의 연구에서도 회상과 즐거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상을 자주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자기상을 가지며, 미래계획에 관해 자주 언급하며 회상빈도와 자아통합점수는 높은 상관을 보인다(Jaft & Nehrke 1990).

특히 1980년대의 집단회상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즉, 초조감, 우울감 저하,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등 정신능력 향상,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Haight 1995). 국내연구(전시자 1989, 정영

1994)에서도 회상이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일반 불안, 죽음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Lieberman & Falks(1971)는 회상행위가 변화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있으며 변동의 시기에 과거를 폭넓게 재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회상의 장기간 적응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즉 이들은 요양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노인은 재가노인이나 이미 요양원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회상을 보다 많이 하는 것을 발견했으나, 회상행위와 요양원으로 이주한 직후나 2년후의 적응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Berghorn & Schafer(1987)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 회상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며 요양원에서도 여전히 가족생활의 가치를 고수하던 노인이 집단회상을 통하여 가장 긍정적 영향을 받은 반면, 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노인은 집단회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요양원의 제반 제약과 한계를 파악하고 환경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조정하여 잘 적응한 사람에게는 회상활동이 아닌 다른 종류의 활동이 필요함을 암시해준다.

결국 노년기 적응은 자신의 요구와 한계, 가능성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여 환경의 변화를 지각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받는다 하겠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Taft & Nehrke(1990)의 연구에서도 회상의 빈도와 자아통합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회고빈도의 단순한 증가만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통제집단과 사전·사후 평가를 포함시킨 연구로부터는 회상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일관성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Haight(1995)는 20편의 개별회상연구를 고찰한 뒤 부정적 결과를 보인 5편 모두 1시간 미만 개입한 것을 지적하면서, 회상과정을 위한 개입시간 및 횟수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회상을 노년기 적응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회상의 방법이나 과정 유형등에 관

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결국 회상은 노년기에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윤리적·문화적 주체성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삶을 정당화하며, 과거 갈등에 대한 통찰과 함께 그 해결을 가능케 하며, 자아존중감을 제공하여 노년기에 경험하는 제반 상실감에 대한 점진적 적응을 돕는다 하겠다.

나아가 노인의 회상내용을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노년기 삶을 가치있도록 할 수 있다.

한편 회상이 노년기 적응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는데, 즉 회상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실패로 간주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감이나 강한 죄의식, 후회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과거 힘든 시절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회상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노인의 생애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면담을 통한 회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통합을 증진시킨다 하겠다. 이와같이 면담을 통한 회상과 홀로 하는 회상의 결과는 상이하므로, 이들의 분리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초기 정신분석학자들은 노년기에 과거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적응이 안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생의 목표나 의미를 상실한 경우 보다 과거에 몰입한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가 회상의 내용과 상황을 형성하는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상과 노년기 적응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회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회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 확실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단계이며, 회상과 다른 정의적 과정과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는 듯한다.

VI. 맺는말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적응력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년기 회상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실시하였으나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외국연구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로 이상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의 노년기 회상연구는 횡단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연구대상이 소규모, 선택적이라는 점, 종속변인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타당도 문제, 용어의 혼란문제 등 연구방법상의 제한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주제가 되고있는 노년기 회상의 보편성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노년기 회상연구에는 관련변인이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되어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상결과의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개념, 자아통합, 생활만족도, 적응, 사기감, 죽음불안, 고독감과 같은 종속변인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일관성있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낙관적인 방향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회상 실시방안, 회상유형, 회상과정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상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의 회상연구는 인생회고와 회상과의 구분 및 개념의 명료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노인의 성격특성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라 회상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상이한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나 사별과 같은 전환적, 위기적 사건에 처한 노인대상의 연구도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동시집단이 경험했던 일제시대, 해방, 남북분단, 6.25 등 역사적 사회적 사건이 노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 생애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외국 노인과는 구분되는 우리나라 노인 동시집단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나아가 회상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요구되며 개별회상과 집단회상의 구분,

시설수용 노인과 재가노인 회상의 상이점 분석, 임상영역과 연구영역간의 협력등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심리적 위기에 처하기 쉬운 중년기를 대상으로 회상을 실시함으로써, 중년기에 대한 회상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노년기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생애업적 정리나 사진첩 정리, 자서전 쓰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회상강화 방안을 노인교육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년기 자아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노년학 강의시간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노인을 방문·면담하여 노인의 인생사를 연구하도록 하는 과정은 세대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면담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적 경향이 노인의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노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과거경험을 전수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전시자(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9, 92-109.
- 2) 정 영(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카톨릭대학 의과대학 논문집 47(2), 1009-1025.
- 3) 하양숙(1990).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4) Aldous, J.(1990). Family development and life course : Two perspective on family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571-583.
- 5) Beaton, S.R.(1991). Styles of reminiscence and ego development of older women:Residing in long term care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1). 53-63.
- 6) Bengtson, V.L. & Allen, K.R.(1993).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pplied to families over time. In P.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 Theories and Methods. N.Y. : Plenum Press.
- 7) Berghorn, F.J. & Schafer, D.E.(1987). Reminiscence Intervention in nursing homes : What and who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2), 113-127.
 - 8) Burnside, I.(1995). Themes in reminiscence group with older women. In J. Hendricks(Ed.), *The Meaning of Reminiscence and Life Review*. N.Y. : Baywood Publishing Company.
 - 9) Butler, R.N.(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Y. : Harper & Row.
 - 10) David, D.(1990). Reminiscence, adaptation and social context in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0(3), 175-188.
 - 11) Fry, P.S.(1995). Individual difference in reminiscence among older adult : Predictors of frequency and pleasantness ratings of reminiscence activity. In J.Hendricks (Ed.), *op.cit.*
 - 12) Hagestad, G.O.(1990). Social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3rd ed., N.Y. : Academic Press.
 - 13) Haight, B.K.(1988). The therapeutic role of a structured life review process in homebound elderly subjects. *Journal of Gerontology* 43(2), 40-44.
 - 14) Haight, B.K.(1995). Reminiscing : The state of the art as a basis for practice. In J. Hendricks (Ed.), *op.cit.*
 - 15) Kaminsky, M.(1984). The use of reminiscence : A discussion of the formative literatur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7, 137-156.
 - 16) Lamme, S & Barrs, J.(1993). Including social factors in the analysis of reminiscence in elderly individ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97-311.
 - 17) McGowan, T.G.(1994). Mentoring-reminiscence :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4), 321-336
 - 18) Merriam, S.B.(1993). Butler's life review : How universal i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3), 163-175.
 - 19) Moody, H.R.(1984). Reminiscence and the recovery of the public world.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7(2), 157-166.
 - 20) Sherman, E.(1995). Reminiscencia : cherished objects as memorabilia in late-life reminiscence. In J. Hendricks (Ed.), *op.cit.*
 - 21) Taft, L.B. & Nehrkke, M.F.(1990). Reminiscence, life review, and ego 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0(3), 189-196.
 - 22) Thornton, S. & Brotchie, J.(1987). Reminiscence :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93-111.
 - 23) Wallace, J.B.(1992). Reconsidering the life review : The second construction of talk about the past. *The Gerontologist* 32(1), 120-125.
 - 24) Webster, J.D. & Young, R.A.(1988). Process variables of the life review : Counseling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4), 315-323.